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8장 31-42절

Tag: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거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

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8:31-42)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자유롭고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 모든 짐을 벗어버리라. 모든 죄와 죄책감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라.

예수를 믿으면 좋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다른데 가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길처럼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면(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리라.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 제자가 되어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닫게 됨. 진리로 깨우침을 받는 만큼 자유롭게 됨.

그러자 곁에 있던 악플러 바리새인들이 탄지를 걸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아님.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탄지를 거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한 사실은 잊었나? 바벨론 포로생활은 잊었니?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으로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영적인 말씀을 하셨다.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핵심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하셨다.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5. υἱὸς(후이오스) 아들(소문자)-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르킴.

36. Υἱὸς(후이오스) 아들(대문자)-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르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그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우리에게는 종의 단계, 아들의 단계가 있다.

종은 언젠가 주인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자.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종의 신분 →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심 →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의 특징; 죄를 범한다.

종도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종은 독생자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

종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면, 종이 왜 마귀의 말을 믿게 되는지 알게 된다. 종은 마귀의 말이 더 정겹고 자기의 영적인 감각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속성. 세속적이고, 억압하려고 하고, 욕심스럽고, 사실을 숨

기고, 이겨 먹으려하고, 고집스럽고, 억지스럽고, 휘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몰상식하고, 기괴하고, 혐오스럽고, 반항적이고, 나쁜 짓에 휩쓸린다.

마귀는 왕따 당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나쁜 생각에 휩쓸리는 경향 등을 이용한다. (결국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 자녀의 속성; 거룩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결하고, 후덕하고, 친절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누우치고, 겸손하고, 예절을 지키고, 존중하고, 비난하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사람 속에는 마귀적인 속성과 하나님 자녀의 속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종이였기에 마귀의 속삭임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깨우치셨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마귀의 속성을 죽일 수 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선택 인자; 믿음. 믿음이란 최종적으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자신에게 편한 쪽을 선택한다.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는 항상 가면이 있다. 율법주의라는 가면. 속에는 세속이 있는데 겉에는 화려함이 있다.

속에는 욕심이 있는데 겉에는 욕심을 숨기기 위한 허세가 있다.
속에는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고 겉에는 뻔뻔스러운 그럴듯함이 있다.

속에는 이겨먹으려는 욕망이 있는데 겉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

시키려고 한다.

속에는 몰상식과 거짓이 있는데 겉에는 잘 알려진 감성팔이가 있다. 감성팔이가 곧 이 시대의 율법주의다. 많은 정치인이 밥퍼를 이용한다. 무료급식이 정치적 도구가 되고 스펙 쌓기 용 봉사학점이 됨.(영성으로 돌아오고프나 밥퍼를 떠나지 못하는 최일도목사, 밥퍼에 주력하지 않고 제자훈련에 주력함.)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자신이 봉사도 잘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또 경건한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한다.

-척인가 진심인가? 남이 알아주어야 하면 척이고,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진심. 척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진학하고 취직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심.

설교의 목적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은 꿈결에 홀리보이스가 아니라, 예배중 설교 말씀이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서 비롯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결하고, 베푸는 마음과, 친절하고, 넓은 아량과, 이해심과,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과, 예절과, 존중과, 비난하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려는 마음 과,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을 이용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